



[르포] LG전자 구미사업장 12초에 한대씩 TV조립 정성 들여야 '초 프리미엄' 05



Economy

코스피	2092.78 (+10.94)	코스닥	729.60 (+19.44)
금리 (우대금리)	1.71 (0.00)	환율 (원/달러)	1188.60 (-0.80) (15일)

인터넷전문은행, 자본력에 희비

1.3조 '카뱅' 흑자전환 vs 투자자 찾는 '케이뱅크' 적자지속

(자본금)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이익 65억 안정적인 자본확충에 실적 개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현황)

kakaobank	구분	bank
1조3000억원	자본금	4775억원
16조280억원	수신	2조640억원
10조368억원	여신	1조5400억원
930만명	고객수	101만명
흑자전환	1분기 순이익	적자지속

케이뱅크, 자본금 여전히 부족해 412억 전환신주 유상증자 결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2호인 카카오뱅크가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분기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고객수는 1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 등 새로운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다. 카카오뱅크는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자본을 확충하면서 수익기반을 다졌지만 케이뱅크는 흥행 돌풍에도 자본 부족으로 영업 중단이 되풀이됐다.

을 시작했다. 첫 해인 2017년 3분기, 4분기에는 순손실 규모가 수 백 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적자폭이 50억~60억원 안팎으로 축소됐고, 올해 들어서는 흑자로 돌아섰다.

15일 한국금융지주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65억6600만원이다. 분기 기준 첫 흑자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영업

고객수는 지난해 말 기준 930만명이며, 수신과 여신 규모는 각각 16조280억원, 10조368억원에 달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들이 흑자로 돌아서는데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고객 저변을 빠르게 넓히는 가운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규모 확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며 실적도 개선됐다. 3000억원으로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약 412억원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차원에서 시행한다"며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는 이번 브리지 증자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케이뱅크는 잦은 유상증자에도 자본금이 여전히 5000억원이 되지 않는다. 주주 구성이 파편화된 탓에 매년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상증자가 이뤄졌고, 자본 부담에 대출 중단과 판매재개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이날도 이사회를 열고 전환 신주 약 823만5000주, 41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자금 납입일은 다음달 20일이다.

증자에 성공하면 총자본금은 약 5187억원이 되지만 여전히 충분치는 않다. 신규 주주사를 적극 영업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다 안정적인 자본확충 기반 구축을 위해 업계 리딩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주주사 영업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기업들과 신규 주주 참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정 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통주 지분율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우리 선생님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신현중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그린 선생님들의 캐리커처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바이오헬스, 제2반도체로 육성 R&D, 규제혁파방안 조속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바이오헬스산업은 우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수한 의료 인력, 병원 등 강점을 살린다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대책을 두고 “생활 SOC 예산사업 특성상 지난 1분기 집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이제는 집행이 본격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추경편성을 신속히 마치고 하도급 추경 전이라도 국비 우선교부·집행제도 및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5.4%로 빠르게 성장해 2022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해양레저관광활성화대책을 두고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연 1000만명 달성, 해양레저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고됐던 버스노조의 파업과 관련, “대부분 지역에서 노사협상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잘 이뤄졌다”며 “오늘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전국 7대 권역별로 구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해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방안, 테마 섬·해안누리길 개발 등 체류형 관광 확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된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취업자수가 4월 17만1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해서 목표인 15만명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거점형 마린 6곳 조성, 비즈센터 건립, 크루즈 부두·터미널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이어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어나는 반면 제조업은 감소하는 흐름이 지속됐다”며 “경기 하방리스크 등 고용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 총수 세대교체 공식화 구광모·조원태·박정원 등 3·4세 '새 총수'

LG·한진·두산 동일인 변경 현대차그룹·효성·코오롱 등 교체 예상그룹도 10곳 넘어

공정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위 10위 2019년 기준

기업명	총수	계열사 수	자산총액 (공정자산)
1 삼성	이재용	62개	414.5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3	223.5
3 SK	최태원	111	218.0
4 LG	구광모	75	129.6
5 롯데	신동빈	95	115.3
6 포스코	(주)포스코	35	78.3
7 한화	김승연	75	65.6
8 GS	하창수	64	62.9
9 농협	농협중앙회	44	59.2
10 현대중공업	정몽준	31	54.8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집단 상호출자제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재벌그룹 총수들의 '세대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롯데에 이어 LG·한진·두산의 동일인(총수)이 변경됐다. 총수의 건강악화·고령·경영퇴진 선언 등으로 조만간 교체가 예상되는 그룹도 1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3면)

로, 재계 15위 두산은 박용곤 명예회장

본부 회장에 이어 4세대가 '정부 공인'으로 그룹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 3월 별세한 박용곤 명예회장에 이어 4세인 박정원 회장을 두산그룹 총수로 지정했다. 박정원 회장은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박두병 창업 회장의 맏손자다. 박두병 회장의 부친인 박승직 창업주부터 따지면 두산가 4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일단 LG그룹의 총수를 지난해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에서 4세대인 구광모 회장으로 변경했다. 창업주 구인회 전 회장과 구자경 명예회장, 구

구광모·박정원 회장은 공정위가 1987년 총수 지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정한 4세대 총수다.

총수 지정에 내부 잡음이 일며 이번 대기업집단 발표가 2주 연기되는 원인을 제공한 한진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 동일인이 직권 지정됐다. 조원태 회장은 조중훈 창업주의 손자이자 지난해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아들로 3세에 해당한다. (2면에 계속)

/박인용 기자 parkiu7854@